

첫 도입 다수 큐레이터제 장단점 논의 필요

폐막 광주비엔날레 결산 <하>

동일 주제 기획자 다채롭게 해석 컨트롤타워 없고 전시 일관성 약화

비엔날레전시관·문화전당 이원화 공간 확대되고 체류형 관람 장점 전시 구성 집중도 떨어져 아쉬움



2018 광주비엔날레 다수 큐레이터제와 메인 전시관 이원화는 장단점이 모두 나타나 차기 행사를 앞두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올해 행사 모습. /최현배 기자 choi@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두 가지 점에서 기존 비엔날레와 차별점을 보였다. 전시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일감독제 대신 다수 큐레이터를 도입한 점이고, 공간면에서는 기존의 광주비엔날레관과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전시관으로 활용하면서 메인 전시관이 두 곳이 된 점이다. 지금까지 유료 관람 공간이 두 곳으로 분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올해 첫 시도한 두 가지 부분은 장단점이 모두 나타나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상된 경계’를 주제로 열린 올해 전시는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단일감독제 대신 다수 큐레이터제를 도입한 게 특징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11명의 큐레이터가 모두 7개의 주제전을 진행했다. 한국 작가 43명을 초청한 색션은 3명의 큐레이터가 ‘각각’ 전시를 구성, 실제적으로는 9개의 전시를 관람한 셈이다.

다수 큐레이터의 장점은 동일한 주제를 각각의 기획자가 다채롭게 해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람객들에게는 그만큼 ‘선택지’가 많아지는 셈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각각의 기획자들은 주제를 꼼꼼하게 치밀하게 해석해 난민, 이주, 젠더 등의 주제 관련 이슈를 담아낸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여 흥미로웠다.

반면 도입 초기부터 불거졌던 우려도 나타났다. 전시의 전체 흐름을 잡으며 ‘큰 그림’을 그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두 색션에 동시에 초청된 실과 굽다 등 중복된 작가도 있었다. 또 각각의 큐레이터가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다 보니 영상, 회화, 설치 등 장르간 조화도 어려웠다. 그 결과 올해 전시의 경우 영상 작품이 지나치게 많아 일부에서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평도 나왔다.

당초 다수 큐레이터를 도입하게 된 데는 현대미술계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기획에서 파생된 작품

을 보여주기 위한 점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6개월간 공석 상태가 되면서 준비 기간이 늦어져 단일감독 체제에서는 방대한 전시를 꾸리기가 어려웠자 점도 고려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메인 전시관이 두 곳으로 분산된 점도 긍정·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나타났다. 재단은 당초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만 전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메인 전시관으로 두곳을 활용했다.

메인 전시관이 두곳으로 늘어나 공간이 넓어지면서 좀 더 많은 작품을 볼 수 있고 외지 관객들의 경우 당일 관람이 아닌, ‘1박2일’ 체류형 관람을 하며 광주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등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전시공간이 두곳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전시 구성의 집중도가 떨어져 ‘광주비엔날레만의 색깔’을 각인시키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부 관객은 한 곳만 관람하는 경우도 있어 단일 공간에서 짜임새 있는 전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구나 문화전당은 휴일 없이 열렸던 비엔날레 전시관과 달리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면서 허탕을 친 관람객들이 많았다.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전용관 역할을 할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첫 행사를 치르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편 올해 GB 커미션을 진행한 옛 국군광주병원, 광주시민회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등을 비엔날레 전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감안, 서브 전시장을 확대해 광주 전역을 현대미술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나치게 많은 작품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43개국 165명 작가가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였지만 방대한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전당의 경우 한국 작가전을 소개하는 일부 색션은 전시 공간이 좁아 의욕적으로 참여한 기획자의 의도와 작가의 작품 세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해 아쉬웠다. 부산비엔날레는 34개국 66명(팀)이 125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그밖에 올해 GB커미션에 참여, 국군광주병원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카테리 아티어가 광주에서 제작한 영상 작품을 재단에 기증한 것처럼, 앞으로 비엔날레에 전시된 작품이 광주에 남겨지는 방안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행사가 마무리된 만큼 평가작업을 통해 2020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비엔날레 이사회를 열고 규정에 따라 예술총감독 선임에 들어간 재단은 단일 감독제, 다수 큐레이터제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예술감독 선임 소위원회(3인)와 국제자문위원회의(5인)가 국내외 후보자 50명을 심사해 추천하면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사령탑이 결정된다. 재단은 또 전시장 활용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도한 다수 큐레이터제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과 평가를 통해 차기 비엔날레 전시를 이끌 체제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단일감독이 될지, 숫자를 축소할지 다수 큐레이터가 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행지의 추억·일상성의 사유 시로 노래

영광 출신 안애정시인 첫 시집 출간

“가끔 바다를 만나러 갈 때가 있다. 섬을 끌어안고 한번씩 자신의 속을 뒤집어 보이는 바다를 보고 오는 날은 오랫동안 푸른 바닷물이 따라다닌다. 시가 그랬다.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데 한바다 안에 떠있는 섬처럼 내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시와 어우러려 한다.”

등단 30년 만에 첫 시집을 낸 시인이 있다. 영광 출신 안애정(52) 시인은 스무 살(1989년) 때 MBC청소년문학상 시 부문으로 등단한 이후 오랫동안 창작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다. 현재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외면하고 살아왔다.

최근 안 시인은 계간 시산맥의 제19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으로 ‘구피 닳은 여자’를 펴냈다. 시집에는 지난 3~4년에 걸쳐 쓴 작품들이 담겨 있는데, 쓸쓸하면서도 담백한 감성이 읽혀진다.

작품집에는 일상성에 대한 노래, 불교적 세계관, 여행지에서의 추억 등을 소재로 한 시들이 수록돼 있다. 시들은 모두 “일상성에 대한 사유”로 수렴되는데, 이번에는 “변화와 일탈을 지향”하는 또 다른 욕망이 드러워져 있다.

“여행이 생겨 구피를 사러 갔다.// (중략) // 물



옮겨간다/ 한바다를 만나기 위해”

표제시 ‘구피 닳은 여자’는 화자의 시적 여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화자는 여행 속에 갇힌 구피를 통해 어쩌면 자신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한원군 문학평론가는 “모든 것이 보일 듯 하지만, 실은 간혀 있는 삶의 풍경을 자아내는 것, 이것이 일상의 존재원리이자, 애정 시의 출발점”이라며 “그녀가 만나고 싶은 ‘한바다’는 일상의 이면에 공존하는, 비실재로서의 실제공간”이라고 평한다.

한편 안 시인은 2018년 충북문예재단 창작기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좀더 시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한다.

“광주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결혼을 한 후 남편을 따라 충청도로 왔다. 애를 낳고 키우며 살다보니 시와 떨어졌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 중 하나는 광주가 늘 그리고 가고 싶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헨릭 입센 ‘인형의 집’ 실시간 스크린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 ‘작은 스크린’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사진)의 대표작 ‘인형의 집’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 ‘작은 스크린’ (SAC on Screen) 기획으로 연극 ‘인형의 집’을 오는 14일 오후 7시 45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연한다. 이번 작품은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기념한 공연으로 C.J.월극장과 연결해 실황을 세 시간 동안 현상중계한다.

1879년 초연 이래 여성 해방론의 도화선이 된 작품으로 평가받는 ‘인형의 집’은 치밀한 구성과 사실적 대화를 통해 주인공 노라가 자아를 찾는 과정을 그렸다.

이번 작품에는 러시아 ‘황금 마스크상’을 수상



한 연출가 유리 부투소프가 참여했다. 2003년 ‘보이체크’, 2008년 ‘갈매기’에 이어 10년 만에 ‘인형의 집’을 통해 한국 관객과 만난다. 또 크리에이티브 제작진 소속인 알렉산드르 쉬시킨이 무대미술과 의상을 맡고 니콜라이 레우토프가 안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유리 부투소프가 직접 공모를 통해 선발한 정운선(노라), 이기돈(헬메르), 우정원(린데 부인), 김도완(크로그스타드) 등이 출연한다.

29일에는 ‘발레 호두까기인형’ 공연영상을 상연한다. 선착순 100명 무료. 전화예약 062-670-79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내일 광주 전통문화관서 공예 문화·산업 활성화 포럼

광주공예 문화·산업 활성화 포럼이 14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사)빛고을공예문화마루(이사장 최석현) 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정동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내수 사)국립문화정책지원센터 정책위원이 각각 ‘공예문화산업 발전방향과 과제-공예와 디자인 그리고 국부론’, ‘광주시 공예가를 위해 공예 행정과의 대화’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또 강성근 호남대 교수, 이봉규 광주대 교수, 이철웅 한국공예가협회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주제 발표를 한다.

한편 14~16일까지 서석당에서는 2018공예문화예술체험학교 프로젝트에 참여한 체험자들이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과 명장·명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문의 010-3609-57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미술계 영향력 인사 66위

영국 아트 리뷰, ‘파워 100’ 선정

김선정(53·사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이자 이현숙(69) 국제갤러리 회장이 영국 현대미술 전문지가 선정한 미술계 영향력 있는 인사 100인에 포함됐다.

12일 아트 리뷰(Art Review) 홈페이지에 따르

면 김 대표이사는 66위, 이 회장은 68위를 기록했다. ‘아트 리뷰’는 매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미술인 100명을 선정해 ‘파워 100’을 발표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와 이 회장은 각각 지난해 72위, 79위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또 홍콩에 개관한 시각문화 박물관 엠플러스(M+)의 정도연(45) 부관장이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69위, 양혜규(47) 작가가



12계단 상승한 73위를 기록했다.

1위는 뉴욕과 런던에 이어 홍콩에 갤러리를 연 유명 갤러리스트 데이비드 즈위너가 뽑혔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로 흑인 인권운동을 예술로 표현 중인 케리 제임스 마셜이 2위를 기록했다.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또한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CHANNEL A